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중앙 공원 곳곳에 여름꽃들이 만개했다. 내원객과 직원들은 울창한 숲을 거닐며 화사하게 핀 꽃을 구경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6월 10일 내원객이 동관 앞 공원에 핀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49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꿈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가정의 달 특집 -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중환자간호팀 최은다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7월 1일(화)
발표 제753호(2025년 7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시환(진단검사의학과)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윤은자(영상의학팀)
이지선(심장검사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안수영(진단검사의학팀)
이은희(응급간호팀 ER1 유닛)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혜지(암병원간호1팀)
신화정(병리팀)
이건우(대장항문외과)
정보라(응급간호팀)
탁우진(진단검사의학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공미선(암병원간호2팀)
최유진(암병원간호2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51 2025. 6. 15



고난도 중증 대장암 치료 선도...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

우리 병원 대장항문 외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를 넘어섰다. 해마다 7만 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찾는 우리 병원은 정교함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하며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대장항문외과는 지금까지 로봇수술, 복강경수술을 포함해 총 3만 9,000여 건의 대장암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5년 생존율도 병기에 따라 1기 96.6%, 2기 94.8%로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6월 4일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이 B로봇 2번 수술실에서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최신 연구 공유하는 '오픈 세미나'

07 사람 & 이야기 세계 심장 석학과 함께 만든 TCTAP 30년

12 헬스에디터 상처가 남긴 흉터, 예방부터 치료까지

15 AMC 루키 진심을 담은 간호, 보람을 느낍니다



서울아산병원 뉴스를
병원 소식을 한눈에

대장암 로봇수술 국내 첫 3,000례



대장항문외과 박인자 임상분과장(오른쪽)이 6월 4일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 환자의 암 절제 수술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대장항문외과가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를 넘어섰다. 2010년 대장암 치료에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16년 만에 이룬 성과다. 로봇수술은 복부에 작은 구멍으로 관절이 있는 로봇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3D 영상과 넓고 확대된 시야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정교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전체 대장암의 약 45%를 차지하는 직장암은 방광, 생식기 등 골반 내 주요 장기들과 인접해 있고 혈관이 밀집한 부위에 위치해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로봇수술을 진행하면 15배까지 확대된 화면을 통해 조직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관절이 있는 로봇팔을 이용해 주변 장기의 손

상을 최소화하면서 암 부위를 절제할 수 있다. 우리 병원 최근까지 대장암 수술 3만 9,000여 건을 시행했다. 이 중 로봇수술은 3,000여 건, 복강경 수술은 1만 3,000여 건이었다. 풍부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성적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대장항문외과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병기별로 1기 96.6%, 2기 94.8%로 매우 우수하다. 수술 난도가 높은 3기 환자의 5년 생존율도 2015년 83.1%에서 2017년 91.3%로 8.2%p 향상됐다. 수술 후 30일 내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약 3%로 아주 낮았다. 이는 재발성 대장암, 타 장기 전이 대장암, 동시 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최근에는 단 하나의 구멍을 통해 대장암을 치료하는 단일공 수술이나 대장암 간전이 환자 수술 등 정교함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직장암 수술의 90% 이상을 항문보존수술로 시행하고 있다. 항문괄약근을 최대한 보존해 수술 후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장항문외과 박인자 임상분과장(대장암센터소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수술 경험과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로봇수술은 물론 고난도 중증 대장암 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 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 김태원 연구원장(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 심포지엄이 6월 12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차세대 종양학에서의 임상 수요와 혁신의 연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산·학·연·병의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폐암의 차세대 치료 전략 ▲암 백신: 코로나19에서 배우다 ▲세포 기반 암 치료 ▲데이터 기반 문서 자동화를 통한 비임상 연구 효율화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및 도전 과제 ▲최신 항암제 개발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신 연구 공유하는 ‘오픈 세미나’



6월 4일 열린 오픈 세미나에서 신동명 세포치료센터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원 오픈 세미나’가 5월 21일과 6월 4일 교육연구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5월 21일에는 최재순 의공학연구소장이 ‘피지컬 AI 시대의 의료 로봇’을 주제로, 6월 4일에는 신동명 세포치료센터소장이 ‘첨단재생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매월 1, 3주차 수요일에 진행되며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 경영진 방문



김형돈 종양내과 조교수, 닐스 헬트 로슈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닐스 헬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로슈의 글로벌 임상연구 부문 경영진이 6월 5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우리 병원은 2015

년 로슈와 암 면역치료 연구를 위한 전 세계 우수 병원의 네트워크인 imCORE(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Centers of Oncology Research Excellence) 구성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연구개발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향후 글로벌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김태원 연구원장,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등 연구원 보직자와 종양내과, 병리과, 의생명연구소 등 암 분야 의료진을 만나 우리 병원의 암 연구 및 치료 실적과 연구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로슈의 신약 개발 성과와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문 출입구 개통



최근 개통된 남문 출입구의 모습.

우리 병원 중앙주차장에서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 잠실 방면

으로 나갈 수 있는 남문 차량 출입구가 최근 개통됐다. 남문 출입구는 중앙주차장과 풍성초등학교 사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차량 출입구가 기존 정문, 서문 총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면서 원내 차량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문 출입구는 현재 출차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주차동 증축 완료 후 입출차가 모두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태경 관리부원장은 “앞으로도 내원객의 병원 출입 및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에는 병원과 송파세무서 사이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 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가 개통됐다.

조직문화 특강



6월 11일 열린 조직문화 특강에서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조직문화 특강이 6월 11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하유진 고려대 심리학부 겸임교수가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감의 구분 방법 ▲심리적 안전감을 이끌기 위한 리더의 태도와 대화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우리 병원은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과 존중·소통을 통한 올바른 협업문화 구현을 위해 매년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금연 캠페인



내원객들이 금연 상담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금연 캠페인 행사가 5월 30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관 앞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금연 상담 클리닉 ▲금연 퀴즈 ▲롤렛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병원 전 구역과 인근 지역을 돌며 담배공초 등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 ▲흡연 인식개선 순회 캠페인 등도 진행됐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불우환자 지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현숙	300,000원
김선옥	1,000,000원	박인숙	500,000원
박형준	500,000원	박지혜	100,000원
에스티캐피탈 주식회사	100,000,000원	서희정	1,000,000원
이경미	300,000,000원	신현숙	10,000,000원
임채민	1,000,000원	위정우	300,000원
장미선	200,000,000원	이경미	200,000,000원
장형지피	50,000,000원	이혜정	200,000원
(주)선일금속	100,000,000원	임재현	100,000원
(주)제이씨래빗컴퍼니	100,000,000원	챔피언영어교습소	500,000원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00원	최병조	5,000,000원
최우식	100,000,000원	최영남	300,000원
한계숙	100,000,000원		

- 2025년 5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 정

김경모 교수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 초청 강연



소아청소년전문과 김경모 교수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57회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소아 내시경역행체담관조영술(ERCP)의 도전 과제: 동양과 서양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소아 ERCP의 기술적 어려움과 적은 시술 건수로 인한 교육의 한계, 성인과와의 협진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시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유숙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알레르기내과 조유숙 교수(신약개발지원센터소장)가 5월 21일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국내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단계 진입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맞춤 자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의 수준과 성공률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호석 교수 중국 대련의대 초빙교수 위촉



안과 사호석 교수가 최근 중국 대련의과대학의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사 교수의 안과 질환 치료 노하우를 높이 평가한 대련의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1947년 설립된 대련의대는 중국 동북지역의 상위권 의료 교육기관으로 부속 병원 3곳에서 총 8,7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사 교수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김미서 과장 우수구연상



감염관리팀 김미서 과장이 5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30차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CPE 노출검사 양성률 및 병상 유형·유전형 기반 전파 양상 분석’을 주제로 이상을 받았다.

강동구청 우수기부 감사장 수여



우리 병원이 6월 5일 강동구청에서 열린 ‘희망디딤돌기금 및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표창 수여식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직원들의 급여 끝잔 모으기로 조성된 모아사랑 기금 1,600만 원을 강동구 희망디딤돌 기금에 후원했다. 후원금은 강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보호종로 아동의 자립 지원에 사용됐다. 최재원 대외협력실장(사진 오른쪽)이 직원을 대표해 이수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우진 부교수 WHO 교과서 집필 참여



피부과 이우진 부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발간 예정인 「피부종양의 분류」 개정 5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WHO가 발간하는 ‘종양의 분류’ 시리즈는 각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단과 치료의 지침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교수는 피부림프종의 분류에 대한 집필에 참여했다.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수상



건강의학과,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5월 29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The Liver Week 2025)에서 수상했다. 건강의학과 박하나 조교수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포함한 지방간질환 아형에서의 암 발생 위험 및 비침습적 예측인자’, 소화기내과 최원묵 조교수와 황영석 조교수는 각각 ‘특발성 문맥압 항진증에서 예후 인자 및 질환 조절 기전 규명’,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이식 확대 기준의 성능 평가’를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

2025년 상반기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가 발표됐다.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서식지별 의무기록 완결률 지표를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내과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종양내과, 통합내과, 피부과
외과계	대장항문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치과
(진료과 가나다순)	

연구가 건넨 ‘빛’



김태원 연구원장

“자막 있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뇌졸중 후유장애로 시야장애를 겪던 한 환자가 신경과 외래 진료 중 눈물을 흘리며 건넨 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일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온 뇌졸중은 시야 일부를 앗아갔고 일상에 대한 자신감마저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적절한 시야장애 치료법이 없었다.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손상된 시각피질로 인한 시야장애는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가 그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시지각 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어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신경과 강동화 교수팀이 개발한 ‘비비드브레인(vividbrain)’은 세계 최초의 시야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다. 이 성과는 단지 한 명의 환자가 시야를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의학연구의 결과물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도 지난 20년 사이에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학문적 발견을 단행본으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더 빠르고 넓게 공유하고 있다. 논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동료 전문가의 평가와 리뷰를 거쳐 과학적 신뢰를 확보한 객관적 증거이자 연구자의 임용과 승진, 연구비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유사한 논문이 쏟아지고 연구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마치 인플레이션 속 자산처럼 논문의 가치도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더 새롭고 더 영향력 있는 논문을 쓰기 위한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논문은 더 이상 연구자 개인의 ‘화폐’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비드브레인처럼 논문이 진료 지침을 바꾸고 기술을 상용화하며 환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병원과 사회 전반에 의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지난해 우리 병원 캠퍼스에서 발간된 논문 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상황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다.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는 진료 분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전체 논문 수는 줄었지만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고, 국가 연구과제에 도전하는 연구자들 또한 크게 줄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막 있는 영화를 다시 볼 줄 몰랐어요.” 환자의 이 한마디가 말해주듯 연구는 결국 환자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이다.

한 편의 논문이 환자의 삶을 바꾸고,

한 연구자의 집념이 진료 기준을 새롭게 하며,

한 병원의 도전이 새로운 시장을 연다.

그것이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이며, 논문을 쓰는 동력이다.

세계 심장 석학과 함께 만든 TCTAP 30년

1995년 전 세계 심장 의학 전문가들이 6층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심혈관조영실의 중재시술이 생중계되자 모두 숨죽여 지켜봤다. 중재시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판도를 예감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병원 심장병원 주도로 첫 발을 내민 관상동맥중재시술학회는 매년 심장 분야의 뜨거운 논의와 교류의 장이 되었고, 우리 병원과 한국 심장 분야의 위상을 높였다. 아시아·태평양 최고의 국제 심장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한 TCTAP의 30주년을 기념해 회고록을 펴낸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를 만났다. <편집실>



좌주간부(left main)에서 글자를 딴 ‘메인 박’으로 바뀌었다(웃음)

1995년 당시 라이브 시연은 국내에 선례가 없었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방송 중계팀을 섭외하고,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어 3층에서 6층까지 라인을 일일이 연결해야 했다. 자체 영상 편집실을 마련해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등 발로 뛰며 내부 노하우를 쌓고 시스템화했다. 해외 송출로도 이어지면서 학술대회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TCTAP에서 체감하는 우리 병원의 위상은 어떤지

내부에선 체감하기 어렵지만,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는 세계 심장 전문가들은 우리를 ‘하이 플레이어’로 여긴다. 여전히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만큼 트레이닝 수준도 높아서다. 2003년 NEJM에 논문을 실은 이래 9번 우리 병원의 이름이 올랐다. 여러 구성원이 계속된 연구 성과를 내며 일군 총체적인 성과다.

모든 성과는 증거 중심의 논문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해 개원 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가 쌓이자 논문 작성은 수월해졌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드물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의 과거 원동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필요한 준비는

정주영 설립자님의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은 강력한 명분을 주었다. 모두가 환자를 살리는 일에 절대적인 시간과 열정을 쏟았고 집단 지성과 협력으로 이어지며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됐다. 우리의 결정과 실행이 시대적 요구와 맞닿는 행운도 있었다. 이제 같은 성장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협력하며 ‘팀’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쌓고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간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석학들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회고록을 발간했다



30년간 TCTAP에서 많은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삶을 나누는 우정을 쌓아왔다. 초창기에 젊고 도전적이었던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리더로 함께 성장했다. 이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로 2만여 장의 사진을 일일이 고르고 글을 적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니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자 감사한 인생이다. 그래서 회고록 제목을 ‘GOOD PEOPLE, GOOD MEMORIES, GOOD LIFE’로 지었다.

당시 신생 병원에서 어떻게 전 세계 석학을 모을 수 있었나

콘텐츠의 힘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술을 이곳에 오면 볼 수 있었으니까. 좌주간부의 협착에는 우회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던 시절에 중재시술을 최초로 시도하고 공유했다. 라이브 시술과 패널 토의 등 학술회의 현장은 늘 뜨거웠고 석학들은 자연스레 모여들었다. 무모한 시도로 여겨지던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이제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크레이지(crazy) 박’으로 불렸던 내 별명도

소년, 더 높이 오르다

일곱 살 소년은 엄마 손에 이끌려 수술대에 올랐다. 입안을 붓게 만든 ‘종양’을 떼는 수술이라고 했다.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던 수술은 두 번, 세 번 이어졌다. “엄마, 얼굴 안에 뭔가 또 자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엄마 얼굴엔 금세 어두운 근심이 드리웠다. 의사에게도 비슷한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동호는 어떡하라고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화를 냈다. “이 병원에서도 동호를 치료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하지만...”이라며 의사가 소개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끝까지’라는 약속

3번의 수술을 받고도 커다란 종양이 재발한 아이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 부모는 진료실 문 앞까지 안절부절못했다. “끝까지 해봅시다!” 이비인후과 교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나올 수 있다는 먼 희망보다 ‘끝까지’라는 책임감이 훨씬 든든하게 들렸다. 진료실을 나설 때까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했다. 신경이 많이 연결된 부위여서 까다로운 수술이 될 거라고 했지만 수술 후 종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음 놓고 보낸 1년. 종양은 어느 순간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지방 육종의 가능성을 두고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고경남 교수는 작은 표정까지 읽으려는 듯 소년과 눈을 맞췄고 많은 이야기를 건넸다. “괜찮아, 잘될 거야.” 틀어진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 만난 성형외과 최중우 교수는 “종양 치료만 잘 받고 오면 내가 얼굴은 잘 만들어 줄게!”라며 호탕하게 약속했다. 의료진을 만나면 영킨 실타래를 살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암 환자의 삶은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크게 한 입 먹어보고 싶다~” 남들과 다르다는 서글픔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했다. 종양이 얼굴 뼈와 치아를 밀어내면서 턱이 틀어지고 치아 5개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숟가락 하나도 입에 넣기 어려워 모든 음식을 다져 먹어야 했다. 소년은 ‘육즙 터지는 맛’마저 궁금했다. 오른쪽 안면이 마비되면서 음식을 곧잘 흘리고 뜬금없이 눈물이 새어 나오자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외출과 외식은 자연스레 줄었다. 치아 교정과 양악 수술을 시작하며 출석 일수를 채우기 어려워져 중학교도 자퇴했다. 몇 번 입지 못한 새 교복은 엄마의 눈물 버튼이 됐다. 그때마다 동호가 건강했다면 치맛바람 센 엄마가 됐을 거라며 엄마는 애써 웃었다. “너는 영특하니까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 아빠는 일터에서 종종 전화 걸어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해!”하고는 “...인마, 너도 대답 좀 해주라!”라며 대답을 재촉했다. 끝없이 들어가는 치료비에 숨이 턱턱 막히면서도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족했다.



때로 무너지는 날도 있어서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아플까?’ 수술은 수십 번을 받아도 때마다 두려웠다. 항암치료가 시작되자 계속 토하고 어지러웠다. 코끝을 따라다니는 약 냄새가 앞으로의 운명인 것만 같았다. ‘치료의 끝이 없다면 삶을 끝내는 게 쉬울지 몰라. 나만 없어진다면 가족들도 행복할 테고.’ 스치는 생각이 마음에 오래 머문 날 소년은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순간, 소년의 양팔을 엄마가 꼭 잡았다. 아들이 젊어진 무게가 오롯이 엄마의 손끝에 전해졌다. ‘이쯤에서 아이를 놓아주고 나도 따라갈까. 내가 더 늙으면 아이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아들을 더 꼭 쥐었다. “동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더 불행해질 거야.” 소년의 팔에는 엄마가 붙잡았던 자국이 깊게 남았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자는 엄마의 부타이 몸에 새겨진 것이다.

더 높이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빠, 방문에 철봉 좀 달아주세요.” 소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섰다. 매일 집에서 턱걸이를 연습하면서 무언가에 열중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전환됐다. 실력이 늘수록 자신감도 생겼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무난히 진학했다. 항암과 약물 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종양도 예전처럼 빠르고 크게 진행되진 않았다. 다만 이비인후과 최승호, 권민수 교수에게 매년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그때마다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 열심히 쌓은 체력과 턱걸이 실력은 금세 허물어졌다.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을 이겨내며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을 키웠다. 매 순간의 소중함은 커졌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수술받고 퇴원하는 날, 낯선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엄마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김동호 군이 턱걸이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 받기 전 날, 온라인 턱걸이 대회에 영상을 찍어 보낸 것의 결과였다. 건강한 참가자들을 모두 제쳤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가족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장하다, 우리 아들!”



삶의 감사를 짊어지고서

지난 연말 공중파 TV에 턱걸이 달인으로 소개됐다. 1분에 70여 개. 긴장한 체구와 단련된 체력을 뽐내는 이들도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기록이었다. 턱걸이 영상을 올리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멋있었다, 대단하다는 응원부터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는 환우들의 따스한 댓글이 가득했다. 소문을 듣고 영상을 찾아봤다는 고경남 교수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동호야, 네가 언젠가부터 어깨가 넓어진다 싶었는데 챔피언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존경스럽다!” “여러 교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살려주신 덕분이에요. 제 목숨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주면 내가 더 고맙지! 선생님은 동호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소년은 자신의 작은 영향력을 가지 있게 사용하고 싶은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부모님의 눈물, 의료진의 책임감, 다른 환자들의 희망... 그것들을 짊어지고 스물세 살 김동호는 매일 철봉에 매달린다. 중력을 거슬러, 더 강한 도전을 준비하면서.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취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됐어요”

태국에서 온
제드니팍 베니 인트라폰판 임상강사



태국의 2,0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대학병원에서 3년간 마취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아산병원의 해외 의료진 연수 과정을 알게 됐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관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지원했고 2024년 9월부터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형외과 수술 마취와 급성 통증 관리에 대해 연수를 받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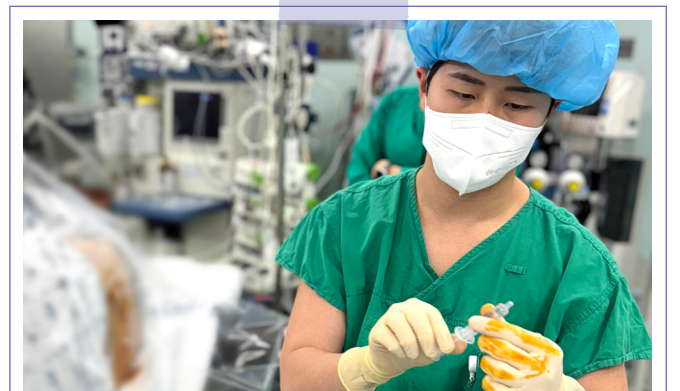
#수술실 동료들과 #쌍따봉 👍👍

이제는 G로봇이 제2의 집처럼 편해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많은 시간을 신관 3층 G로봇 수술실에서 보냅니다. 지도교수인 마취통증의학과 고원욱 교수님을 비롯해 의료진 모두 배려 깊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연수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초음파 유도하 말초신경 차단술, 경막외 신경 차단술의 방법이 태국과는 달라 놀랐어요. 태국에서는 특정 타겟에 집중하는 반면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시술 부위 주변 신경, 혈관, 뼈, 힘줄 등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더라고요. 마취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있습니다.

마취가 힘든 고령의 환자가 있었어요.

다리 상처 부위의 심각한 감염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80대 남성 환자가 있었어요. 환자는 부정맥 등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전신 마취는 어려웠죠.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 척추 마취도 힘들었어요. 이때 허벅지 쪽을 통한 신경차단술로 환자를 효과적으로 마취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보통 전신 마취를 시행해요. 아마 그랬다면 환자는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을 거예요.



#열정과 집중 🔥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진심인 것 같아요.

한국 동료들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정적으로 맛집을 소개해줘요. 또 “식사하셨어요?”라고 묻는 게 한국 특유의 인사 문화라고 들었어요. 한식당에 가면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아! 동료가 삼계탕을 소개해줘서 먹어봤는데 그날부터 완전히 삼계탕에 반했어요. 주변 한국 친구들이 어르신 입맛이라고 놀리더라고요. 하지만 삼계탕에 푹 빠져서 처음 몇 달 동안은 10곳 이상의 삼계탕집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경복궁 근처에 있는 인생 맛집을 찾았답니다. 매우 유명한 곳이라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웃음)



#성내천 산책 #날씨 좋고 기분 좋고



#고원욱 교수님과 #감사합니다 🙏

느스로 발전했다는 자식감이 들어요.

태국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마취를 할 때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혈압, 중증의 경우 심전도를 모니터링해요. 서울아산병원은 이에 더해 마취 심도 평가, 통증 감시 모니터 기술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또한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까지 전문의가 관리하더라고요. 태국과는 다른 시스템을 경험하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몇 단계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연수를 받으면서 많은 연구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좋은 논문을 작성해 피인용지수가 높은 저널에 꼭 실을 거예요!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상처가 남긴 흉터

예방부터 치료까지



피부과 문익준 조교수



흉터에도 종류가 있다

흉터는 피부가 손상을 입은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직을 말한다. 피부는 자가 치유 능력을 통해 상처를 복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 피부 조직과 다른 특성(색, 질감)을 보이는 피부 조직으로 대체되면 흉터가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어지고 눈에 띄지 않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두드러지게 남기도 한다.

흉터는 크게 비대성 흉터와 위축성 흉터로 구분할 수 있다. 비대성 흉터는 상처 부위에 과도한 콜라겐이 축적돼 피부가 융기된 형태로 남는 것으로 흔히 가려움증, 당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반면 위축성 흉터는 여드름이나 수두, 외상 등으로 피부 진피층이 손상돼 피부가 움푹 꺼진 형태로 남는 경우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용적으로 눈에 띄기 쉽다.

비대성 흉터와 혼동될 수 있는 흉터로 켈로이드를 들 수 있다. 켈로이드는 일반적인 흉터보다 더 과도한 콜라겐 증식이 일어나 피부 원래 범위를 넘어서까지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다. 보통 붉거나 자주색을 띠며 딱딱하고 융기된 형태를 보이고 통증이나 가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 켈로이드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개선되지 않아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복, 개흉 수술을 받는 경우 절개 부위가 넓고 깊어 필연적으로 큰 흉터가 남게 된다. 옷을 입으면 가려지는 가슴과 복부의 흉터보다 노출 부위의 흉터를 유발하는 피부암, 갑상샘 암 수술 흉터가 환자에게 더욱 심각한 미용적 문제를 야기한다.

흉터, 예방할 수 있을까

피부 손상이 가장 표면에 위치한 표피층에 국한된 경우 흉터 없이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피부 손상의 깊이가 진피층에 도달하면 흉터가 반드시 발생한다. 흉터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절한 조치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 유지와 감염 예방이다. 감염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흉터가 심하게 남을 가능성을 높인다. 항생제 연고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드레싱 방법으로 피부 상처를 보호하며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습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부위에 자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등 소독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흉터를 유발할 수 있다. 소독 방법에 대해선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딱지나 껍질을 억지로 벗기거나, 반복적으로 문지르거나, 자외선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경우 색소 침착이나 비정상 흉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보호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처 부위에 작용하는 장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처가 관절 부위에 위치한 경우 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 반복적인 장력에 노출돼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를 유발하기 쉽다. 상처 부위의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핑 요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중증 질환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아 다양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면역력 저하, 영양 불균형으로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기 싫은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수술 직후부터 세심한 흉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흉터의 다양한 치료법

흉터가 생긴 후에도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 **도포 치료** 실리콘 겔, 실리콘 패치, 흉터 연고, 스테로이드 크림 등이 사용된다. 초기 흉터나 비대성 흉터에 효과적이다.
-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켈로이드나 비대성 흉터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해 흉터와 관련된 증상을 개선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억제해 흉터의 부피를 줄인다.
- **레이저 치료** 혈관레이저나 프랙셔널 레이저 등을 통해 흉터의 붉은 기를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프랙셔널 레이저는 위축성 흉터 치료의 근간이 된다.
-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흉터가 매우 크거나 깊은 경우에는 절제 후 재봉합을 통해 다시 재건하거나 피부 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수술 후에도 흉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방사선 치료** 켈로이드의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흉터 절제술 후 재발을 막거나 켈로이드를 구성하는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기타 치료법** 미세침 시술(마이크로니들링), 고주파 치료, 냉동치료(크라이오테라피), 경구 약물 등이 있으며 환자의 피부 상태와 흉터의 특성에 따라 조합해 사용된다.

흉터는 단순히 외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상처가 생겼을 때부터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이미 생긴 흉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자의 피부 상태와 흉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흉터 관리의 핵심이다.

환자 안전, 작은 실천으로 시작된다

- 질 향상·환자 안전 전문가(QPS Hero) 교육



영상의학팀 김영훈 대리

환자 안전은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검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QPS Hero 교육과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었다.

2023년 QPS Hero 1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부서의 질 향상, 환자 안전 관련 개선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본, 심화 교육을 수강했다. 근본원인분석 사례를 직접 실습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웠다. 또한 질 향상 기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혔고 질 지표 성과관리를 통해 개선 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배웠다.

교육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짐이었다. 이전에는 병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지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QPS Hero 교육을 통해 이러한 평가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검사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평소 업무 중에도 능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QPS Hero 1기 당시 활동 주제로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률’을 선정했다. 방사선 검사 전 환자 확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며, 확인 절차에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 확인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환자 안전의 첫 단추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2024년 2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1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률’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손위생 수행률’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영상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손위생이 환자 감염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팀원들과 공유하고, 손위생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검사 전후, 장비 접촉 후 손위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썼다. QPS Hero 교육을 통해 단순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검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활동까지 이어서 하면서 환자 경험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방사선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개선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다. 특히 환자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불안감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QPS Hero 교육은 단순한 업무 역량 강화를 넘어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배움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우리의 작은 변화가 환자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자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에서는 국내·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진심을 담은 간호 보람을 느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뇌염, 뇌경색, 뇌졸중, 뇌전증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새로운 신경학적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활력징후와 의식 수준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질환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뇌전증중첩증으로 1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환자 곁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고, 긴 시간 치료를 잘 견딘 환자는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두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드리자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한 만큼 보람과 뿌듯함도 큰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간호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순간은 환자에게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헛갈리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선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순간이 지나가면 적어두었던 메모를 바탕으로 상황을 복기하며 선배들의 조언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안정감 있게 돌보는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웃음)

자신의 장점은 제 장점은 높은 회복탄력성과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실수를 계기로 실력을 보완해서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놓친 점과 개선할 점을 노트에 기록하다 보면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성취감이 저를 꾸준히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하려 합니다. 나아가 환자뿐 아니라 동료에게도 신뢰받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환자간호팀 최은다 사원

괜찮은 척하는 딸들에게



수술간호팀 김윤지 주임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책을 보는 것을 즐기던 어느 겨울, 어느 날처럼 퇴근 후 갔던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했다. 저자는 대학병원 의사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자신의 딸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을 받은 후 겪은 치료 과정과 일상,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했다. 책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헤쳐 나갈 딸들(환자)과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엄마들(보호자)에게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정신질환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와 같은 단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저자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공존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모든 이의 속사정을 알 수 없기에 내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일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2차적 신체 문제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종종 마주하곤 한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건 주변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괜찮은 척'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대개 신체 질환은 유전이나 불운의 결과로 여기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 친구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일이 많이 힘들어?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하고 사건의 유무를 먼저 물어보며 친구의 힘겨운 가정사가 병을 유발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는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어 모든 정신 질환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

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당한 책임감을 안기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도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 범죄를 일으키는 조현병', '정신질환자 인권 타령에 일반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와 같은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된다.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뉴스들은 정신질환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그들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 만성질환과 같이 꾸준한 관리와 지지가 필요한 그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아무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나 또한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나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도 아니며 오래전에 배운 정신간호학 지식도 이제는 흐릿해졌다. 전문 지식이 없어 한편으로는 무거운 주제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한다. 딸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과 같이, 따스한 시선들이 모여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저자 : 김현아
출판사 : 창비
페이지 : 304쪽
발행일 : 2023년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타코야끼와 함께 춤을



암병원간호2팀 81 유닛 이지은 주임



타코야끼를 직접 만들게 된 계기는

타코야끼 자체를 너무 좋아해 평소에도 자주 사 먹습니다. 하루는 직접 만들어 먹으면 재밌기도 하고 부담 없이 양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들어 봤어요. 타코야끼 판을 사 반죽 농도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식감 연구도 했습니다. 한동안 퇴근 후 갖 구워낸 타코야끼에 맥주 한 잔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타코야끼를 만들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출근길에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만들어 따뜻한 타코야끼와 소스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후 한 가지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팝업스토어를 열어 우리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제 타코야끼 요리 솜씨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간판 이름도 벌써 정했습니다. '타코와 함께 춤을!' 다들 응원해주세요!(웃음)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타코야끼 분말, 계란, 문어, 타코야끼 팬, 꼬치 정도만 있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코야끼 전용 기계는 세척이 쉽지 않으니 그냥 불판만 단독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겉과 속 모두 부드러운 타코야끼를 원한다면 반죽과 물 비율을 1:4~5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타코야끼를 원한다면 1:2.5로 희석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죽 100g에 물 300g이 딱 좋은 식감이었습니다. 다 굽고 난 뒤 버터를 팬에 둘러 한 번 더 튀기듯 구워주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스는 명란마요 소스 듬뿍 올려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문어는 저렴한 냉동 문어를 사서 많이 넣으면 식감이 아주 좋아요. 문어 타코야끼가 조금 물릴 땐 문어 한 알과 칵테일 새우 한 알 넣어 보세요. 전혀 다른 타코야끼가 됩니다.

타코야끼 외에 다른 요리도 즐겨 하는지

파스타, 주먹밥 같은 간단한 음식들을 색다르게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작년 겨울에는 매장에서 산 팔 호빵 위에 녹인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160도로 10분간 구워 단짠단짠 간식으로 자주 먹었어요. 귀찮다면 소금만 뿌려 구워도 정말 맛있으니 꼭 도전해 보세요!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 꿈을 응원해 준 어른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원 생활을 돌아보면 오랜 시간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황윤하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과 목소리,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는 모습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선생님이 저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였어요. 글 쓰는 작가, 그림 그리는 화가, 인기 많은 유튜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장래희망도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제 대답에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어!”라며 힘껏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무료할 수 있는 병원 생활에서 제 꿈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는 어른을 만났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황윤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소아소화기영양과 환자들 중에는 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감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도 적지 않죠. 환자들의 병원 생활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틈틈이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려 노력해 왔습니다.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니 저야말로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환자들 외롭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어린이병원간호팀 황윤하 사원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내과간호2팀 조예서 사원

‘웰컴 투 AMC - 가나의 신장이식 자립을 위한 도전, 멈추지 않을래요’가 인상 깊었습니다. 신장이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챗GPT에 물어보고 가나에서 한국까지 오신 용기와 열정이 대단해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김자연 과장

‘AMC루키 -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고객만족팀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의견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조직의 연결 고리가 되어주는 모습이 인상깊었어요. 앞으로도 따뜻한 소통으로 많은 직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서민기 주임

‘AMC 리얼스토리 - 우리들의 작전 타임’ 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범희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호빈이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아 많은 희귀병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이 정말 흐뭇했어요!

간호교육행정팀 박경훈 주임

‘가정의 달 특집 -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를 읽으면서 잠시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간호팀 김예진 대리

‘풍납동 사진관’에서 어린이날에 어린이병동을 방문한 아루미와 선물을 받는 환아의 사진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병원보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 보고 싶습니다.

풍납동 사진관



의료기기 너머, 사람까지 생각합니다

의료기기도 사람처럼 자치고 피로할 때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공팀은 단순히 고장 난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 의료진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불편함까지 이해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검사실, 중환자실, 외래와 병동... 여러 곳에서 동료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은 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의공팀 최기철 유틸 매니저

※ '풍납동 사진관'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